

Session 01 The Call to Prayer

기도로의 부르심

I. INTRODUCTION

도입

- A. This course will cover many topics related to prayer: its biblical foundations; its practical applications; its historical expressions; and its significance in the generation in Jesus returns.

이 과정은 기도에 대한 많은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기도의 성경적인 기초들, 실제적인 적용들, 기도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에 있어서의 중요성.

- B. My aim in this course is threefold:

이 과정에서의 나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1. To give practical instruction on what to do to develop a life of prayer.
기도의 삶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
2. To give a biblical understanding of different types of prayer and the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m.
기도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이와 관련된 원리들을 제공하는 것
3. To give a big-picture perspective of what the Holy Spirit is doing in emphasizing prayer across the earth in this hour.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전 세계에 걸쳐 성령께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것

- C. A simple definition of prayer: prayer is “talking with God.” It can take many forms, but all prayer is essentially a two-way conversation with the Lord that has life-changing results.

기도의 간단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지만, 모든 기도는 본질적으로 주님과와의 쌍방향의 대화이며, 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D. We talk to the uncreated God of the universe; He listens attentively and with great affection. He responds by revealing His heart, giving us direction, blessing our circumstances, transforming our emotions, touching our loved ones, reviving the church, saving the lost, releasing justice, impacting society, and so on. It is a great privilege and has many implications for our lives and the world. This response is worth whatever it takes to cultivate a strong prayer life.

우리는 스스로 계신 온 우주의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그분은 집중해서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들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반응하시며,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감정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정의를 부으시며, 사회를 변화시키시는 등의 일을 하신다. 이는 위대한 특권이며, 우리 삶과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 강한 기도의 삶을 개발해나가는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된다.

- E. We must contend to establish our prayer life because it will not develop on its own. The Holy Spirit will help all who desire to pray more effectively.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기도의 삶이 자동적으로 개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서는 기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나가고자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도우실 것이다.

- F. Our prayer life can progress from *duty to discipline to delight* (Larry Lea).

우리의 기도의 삶은 **의무감**으로부터 **훈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레리 리)

- G. Isaiah prophesied that the Lord would make His servants joyful in prayer. He referred to a new paradigm for prayer—prayer characterized by joy. I call this “*enjoyable prayer*.” Many of God’s people will be surprised by joy in communicating with Him. Enjoyable prayer is prayer that refreshes our heart! If it is not enjoyable, we will pray only intermittently—or not at all.

이사야는 주님이 자신의 종들을 기도 가운데 기쁘게 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언급했다. 바로 기쁨이라는 특징을 가진 기도이다. 나는 이것을 “**즐거움의 기도**”라고 부른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과의 대화의 기쁨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다. 즐거움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이다! 만일 이것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간간히 기도하거나 전혀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⁷*Even them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and make them joyful in My house of prayer... (Isa. 56:7)*

⁷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 (사 56:7)

II. ALL BELIEVERS ARE CALLED TO GROW IN PRAYER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성장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 A. The Lord calls every believer to a life of prayer, both the new believer and the seasoned saint. The best thing any of us can do to improve our lives and our relationships is to grow in prayer.

주님은 새신자와 기존 성도,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 우리의 삶과 관계들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 B. Being a person of prayer is the most important calling in one’s life. A higher calling than being a spouse, a parent, a pastor, a preacher, or a leader in the marketplace, we will all become far better spouses, parents, and leaders as we take time to grow in prayer. While not every believer is called to preach, each is called to pray. Prayer is not an optional activity as it is essential for our spiritual well-being. Are you ready to join the multitudes now being sovereignly stirred by the Lord to grow in prayer and begin a new chapter in your spiritual life? It is time to start.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다. 이는 배우자가 되거나 부모, 목사, 설교자, 혹은 일터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기여, 우리가 기도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시간을 들일 때에 우리는 모두 훨씬 더 나은 배우자, 부모, 지도자가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부차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며,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당신은 지금 주님으로 인해 주권적인 움직임으로 기도의 성장을 이루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함께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영적인 삶의 새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 C. Prayer involves connecting with the Spirit who energizes us to love God. Our love for God causes us to overflow with love for others. Jesus made an absolute statement about our inability to walk in the fullness of our destiny in God without growing in prayer (Jn. 15:5). He said that unless we abide in Him, we can do nothing related to bearing fruit or maturing spiritually.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과 연결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충만함 가운데 행할 능력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요 15:5).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거나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다.

⁵*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bears much fruit; for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Jn. 15:5)*

⁵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 D. We cannot generate spiritual life. We experience it more as we abide in Christ. Just as it is impossible for us to jump a hundred feet even if we practice much, so it is impossible for us to generate spiritual life. It is not an issue of practice; we were not created to jump a hundred feet! Neither were we created to have spiritual life while living independently of the Spirit.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 이를 더욱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30m 를 점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단지 30m 를 점프할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과 별개로 살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 E. The Spirit will move in a new and powerful way in your life as you take time to grow in prayer. The change may not happen overnight, but it will most certainly happen. The discipline of prayer will eventually become delight in prayer. Dryness in prayer will gradually be replaced by a vibrant dialogue with God that will change your life and result in many answered prayers.

당신이 기도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시간을 들이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의 삶 안에 새롭고 강력하게 움직이실 것이다. 이 변화는 하루 밤 만에 일어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확실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도의 훈련은 결국 기도의 기쁨을 만들어낼 것이다. 기도 가운데 느끼는 건조함은 점차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대화로 교체될 것이며, 이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F. Do not wait for a special spiritual experience to begin to grow in prayer. We grow in prayer by actually praying. Beginners in prayer mature by praying more.

기도를 성장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 있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기다리지 말라. 우리의 기도는 실제로 기도를 함으로 성장해나간다. 기도의 초보자는 더 많은 기도를 할 때 성숙해져간다.

III. FROM DUTY TO DELIGHT

의무감에서 기쁨으로

- A. In my younger days, I loved Jesus, but I dreaded spending time in prayer. I saw prayer as a necessary duty I had to endure if I wanted to receive more blessing.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기도에 시간을 쓰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다. 나는 기도를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라고 생각했다.

- B. My youth leaders told me that I had to develop a prayer life if I wanted to experience the deeper things of God and enter into the fullness of my calling. I read books on prayer. Especially memorable are those written by Leonard Ravenhill and E. M. Bounds, who wrote some of the classics on prayer and revival. After reading their books, I was even more convinced of my need to grow in prayer, but the thought was daunting. The books inspired me, but left me feeling guilty. I felt spiritually “stuck” and desperate for a breakthrough.

내가 청년부일 때 내 리더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나의 부르심의 충만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면 기도의 삶을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레오나드 레이븐힐과 E.M. 바운드의 책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기도와 부흥에 대한 고전들을 남긴 분들이다. 그들의 책을 읽은 후, 나는 내 기도의 삶이 더욱 성장해야 할 필요를 확신하게 됐다. 그러나 이 생각은 나로 하여금 주눅이 들게 했다. 이 책들은 내게 영감을 주었지만, 나는 이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을 느꼈고 이를 돌파해나가기 위해 필사적이 되었다.

- C. I needed a new perspective on prayer—on what prayer is and why the Lord insists on it. I began to see prayer as much more than a religious duty to endure. I learned that it is a place of encounter, a way to receive blessing, an expression of partnership with God, and much more.

내게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은 왜 이것을 주장하시는지. 나는 기도가 참아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도가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이며, 축복을 받는 길이자, 하나님과의 동역의 표현이자 그 이상이라는 것을 배웠다.

IV. PRAYER IS A PLACE OF ENCOUNTER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이다

- A. At first I thought of prayer as a duty that was mostly results-oriented. I imagined that the Lord wanted me to “endure” talking to Him to prove my dedication. I saw it as paying the price, and if I endured it long enough, He would give me the blessing I asked for.

처음에 나는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고, 대부분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나는 주님이 나의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견디기를” 원하신다고 상상했다. 나는 이것을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길게 견뎌내면 그분이 내가 간구한 것들에 대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 B. First of all, prayer is about encountering God and growing in relationship with Him. It is the means by which we most feel His presence and receive love from Him as we gain understanding of what He is like. In prayer we position ourselves to receive fresh insight into His heart as new desires are formed in our hearts. Prayer positions us to be energized to love—to love God and people.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분과의 관계가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게 됨으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들이 형성되게 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 C. The call to prayer is a call to participate in the love that has forever burned in God’s heart. From eternity past the Father has loved the Son with all His heart, and the Son has loved the Father with the same intensity. The primary factor in the Father’s relationships, both within the Godhead and with His people, is *wholehearted love*. The family dynamics among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based on and flow in this wholehearted love.

기도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는 사랑에 동참할 것에 대한 초청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전심으로 사랑해오셨고, 그분의 아들은 아버지를 동일한 크기의 사랑으로 사랑해오셨다.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가지며, 자신의 백성들과 가지는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는 **전심을 다한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 안에 존재하는 한 가족으로서의 역동성은 전심을 다한 사랑에 근거하며, 전심을 다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 D. This love is the foundational reality of God’s kingdom. It is this very reality that we participate in as we grow in prayer—that is, participating in the family dynamics of the Godhead. We do this by receiving God’s love and responding in His love to the Lord and to people.

이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실재이며, 이는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나가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실재, 즉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으로서의 역동성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과 사람들을 향해 그분의 사랑에 대해 반응함으로 이에 참여해나가게 된다.

- E. God’s heart burns with love. He calls us to experience it—to enter into what I refer to as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Salvation is an invitation to this fellowship.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 그분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즉, 내가 “**불타는 마음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은 이 교제 관계로의 초청이다.

V. PRAYER IS A WAY TO RECEIVE BLESSING FOR OURSELVES AND FOR OTHERS

기도는 우리와 다른 이들이 축복을 받는 길이다

- A. We do not pray “just to pray.” Yes, we pray to commune with God, but we also pray so that things will change and God’s blessings will be released in us and through us. There is a point to our prayers. Effective prayer accomplishes much and leads to real results that release blessing.

우리는 “단지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부어질 것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들에는 핵심이 있다. 효과적인 기도는 많은 일을 성취하며, 축복이 부어지는 실제적인 결과들로 이어지게 된다.

¹⁶*The effective prayer of a righteous man can accomplish much. (Jas. 5:16, NAS)*

¹⁶ ...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6)

- B. Praying in faith is a God-ordained way to receive His blessing in both our internal lives and our external circumstances. Some think of prayer solely as communion with God, while others think of it *only* as the way to obtain more blessing in their circumstances. We do not need to choose one over the other; we can expect results from our prayers *as* we grow in communion with God.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내면의 삶과 외적인 환경 가운데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단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만 생각하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를 오직 우리의 환경의 축복을 더욱 받기 위한 길로 생각한다. 우리는 둘 중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장해나가는 가운데**, 이 기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기대할 수 있다.

- C. Some believers have a passive, indifferent attitude toward receiving God’s blessings. They do not seem to care whether their prayers accomplish much in their own lives. They see this attitude as an expression of humility since they consider it selfish to want to receive blessings in “things.” Jesus never affirmed a passive attitude of indifference about receiving from Him. It is false humility to disregard the blessings Jesus has ordained for His people.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수동적이며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삶에서 성취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이 태도를 겸손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들이 “실제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전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에 대해 소홀히 대하는 잘못된 겸손이다.

VI. THE LORD WAITS TO HEAR THE PRAYERS OF HIS PEOPLE (ISA. 30:18-19)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사 30:18-19)

- A. The Lord longs to be gracious, that is, to release a greater measure of grace and blessing to His people. Receiving more from God is not about convincing Him to be willing to give us more. Rather, it is about God convincing His people to pray for more with confidence.

주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더 큰 분량의 은혜와 축복을 붓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도록 그분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설득하며, 확신을 주시는 일이다.

¹⁸The Lord longs to be gracious to you, and therefore He waits...to have compassion on you... ¹⁹He will surely be gracious to you at the sound of your cry; when He hears it, He will answer you. (Isa. 30:18-19, NAS)

¹⁸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 ¹⁹ ...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사 30:18-19)

- B. The Lord leads His kingdom by giving more in response to prayer because He desires a deep relationship with us. In prayer we position ourselves to receive abundant grace and blessing. We must never imagine that we earn or deserve God’s blessing because of our prayers. Rather, prayer is the place of receiving blessing in response to interacting with Him.

주님은 자신의 나라를 기도에 응답하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방법으로 이끄시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자격이 갖추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는 그분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되는 자리이다.

- C. Some of God’s promises for increased blessing are not guarantees, but are invitations to partner with Him in prayer. If we fulfill the conditions—and prayer is one of the conditions—then the promises are guaranteed. Many of the promises in the Word include the conditional word “if”—if we call out to Him, then God promises to answer in specific ways.

증가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중 몇 가지는 그분이 무조건 보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기도 가운데 동역할 것에 대한 초청들이다. 우리가 만일 이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면 (기도가 이 조건들 중의 하나), 이 약속들이 보장된다.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은 조건부적인 단어인 “만일”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¹⁴If My peopl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heal their land. (2 Chr. 7:14)

¹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 D. The Lord opens doors of blessing and closes doors of oppression in response to prayer. We have authority in Jesus’s name to stop demonic activity and to release angelic activity.

주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축복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핍박과 어려움의 문을 닫기도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의 활동을 멈추거나 천사들의 활동을 풀어놓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¹⁹ will give you the keys [authority]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Mt. 16:19)

¹⁹ 내가 천국 열쇠[권세]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 16:19)

- E. God will not do our part, and we cannot do His part. God requires that we cooperate with Him according to His supernatural grace. He gives us a dynamic role in determining a measure of the quality of life that we experience as we respond to Him in prayer, obedience, faith, and humility.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할 일을 대신 다 해주지 않으시며, 우리도 그분이 하실 일을 대신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발맞추어 그분과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와 순종, 믿음과 겸손으로 응답함으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역동적인 역할을 주셨다.

VII. PRAYING WITH FAITH

믿음으로 하는 기도

- A. Jesus taught His disciples, saying, “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n. 14:14). We are to pray in faith so that our prayers will actually produce results—believing that God will answer them by releasing a greater measure of His blessing and power.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가르치셨다 (요 14:14).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분량의 축복과 권능을 부어주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B. Jesu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aying with faith, or confidence:

예수님께서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²³...*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Be removed and be cast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those things he says will be done, he will have whatever he says.* ²⁴*Therefore I say to you, whatever things you ask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and you will have them. (Mk 11:22–24)*

... ²³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²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2-24)

C. Jesus affirmed the need for faith. He affirmed the Roman centurion who had great faith (Mt. 8:10), and He told two blind men,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to you” (Mt. 9:29).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해 말씀하셨다. 그분은 로마 백부장의 큰 믿음에 대해 칭찬하셨으며 (마 8:10), 그분은 두 맹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다 (마 9:29).

D. A man brought his epileptic son to Jesus’ disciples to be healed and complained that “they could not cure him” (Mt. 17:14-21). Publicly Jesus expressed pain over the “faithless generation” and then healed the boy instantly. Later, in private, when the disciples asked why they could not drive the demon out of the boy, Jesus stated the reason simply and categorically: “Because of your unbelief.” He added that nothing would be impossible for those who pray with faith.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고,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다”고 불평을 했다 (마 17:14-21).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고통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셨으며, 그리고 이 소년을 즉시 치유하셨다. 이후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이 이 소년으로부터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를 조용히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 이유를 간단히,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분은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에겐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셨다.

¹⁹*The disciples came to Jesus privately and said, “Why could we not cast it out?”* ²⁰*So Jesus said to them, “Because of your unbelief...if you have faith as a mustard seed, you will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and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²¹*However,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Mt. 17:19-21)*

¹⁹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²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한글 KJV: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 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글 KJV 는 21 절이 있음, ²¹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마 17:19-21)

E. Jesus was unable to do mighty works where there was great unbelief (Mk. 6:5-6). He rebuked the unbelief of the disciples who did not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rose (Mk. 16:14).

예수님께서서는 큰 불신이 있는 곳에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막 6:5-6).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목격한 이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을 꾸짖으셨다 (막 16:14).

VIII. PRAYER IS PARTNERSHIP WITH GOD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 A. The Lord wants much more from His people than for them to be His workforce. He longs to have relationship with those who love Him and to partner with them in accomplishing His purposes.

주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이 단지 그분의 일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가지기를 갈망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 그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 B. God governs the earth in prayerful partnership with His people who reign with Him.

하나님께서서는 자신과 함께 다스리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로 가득 찬 동역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

¹⁰*And have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our God; and we shall reign on the earth. (Rev. 5:10)*

¹⁰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10)

- C. Jesus is not just a King with power; He is also a Bridegroom with a desire for relationship. He has joy in our friendship and in our partnering together in the work of the kingdom with Him.

예수님은 단지 능력이 크신 왕이 아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신 신랑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친구로 교제함에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해 나가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계신다.

- D. The essence of prayer is that we speak in agreement with God. Thus one important aspect of prayer is telling God what He tells us to tell Him. The Word shows us what He promises to release to His people, and we simply pray these things back to Him.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하며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의 중요한 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그분께 다시 기도로 말씀 드린다.

IX. THE IMPORTANCE OF ASKING

구하는 것의 중요성

- A. One foundational principle of the kingdom is that God releases more blessing if we ask for it. He could release more to us without our asking, but He wants us to be involved in the process.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리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이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실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이 과정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²*...Yet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Jas. 4:2)*

² ...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약 4:2)

- B. The Lord knows our needs without our asking, yet He waits to give us many things until we ask Him for them. Many think or talk about their circumstances to others without actually asking God about them. It is easy to think about our needs without verbalizing them. God insists on us asking because the “asking” leads to a greater heart-connect with Him.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그분께 구할 때까지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 기다리신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 생각하거나 다른 이들과 대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실제로 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 입술로 표현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기가 쉽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것을 주장하시는데, 이는 “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더욱 크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⁶*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Phil. 4:6)

⁶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 C. Jesus called us to pray with perseverance for God’s help and blessing. He called us to ask and keep on asking, to seek and keep on seeking, to knock and keep on knocking. The verbs in the Greek are in the continuous present tense, indicating that we are to do this consistently.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에 대해 인내함으로 기도할 것을 부르셨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되 계속해서 구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찾되 계속해서 찾을 것을 말씀하셨고, 두드리되 계속해서 두드릴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이어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⁷“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⁸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Mt 7:7-8)

⁷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⁸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7-8)

- D. Believers are exhorted to come to the throne of grace to *experience* more of God’s grace, which is *already* theirs in Christ. A greater measure God’s grace is available to all who boldly and consistently come to Him. Part of the breakthrough in our experience comes as we pray for it. We receive a greater measure of God’s grace, which renews our minds and emotions.

성경은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의 것이다. 더 큰 분량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께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나아오는 이들에게 부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를 경험하는 돌파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에 대해 기도할 때에 오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더 큰 분량의 은혜를 받게 된다.

¹⁶*Let us...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obtain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Heb. 4:16)

¹⁶ 그러므로 우리는 공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X. A FEW PRINCIPLES TO REMEMBER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리

- A. Our prayers don't have to be worded perfectly to accomplish God's purposes. They are effective because of the authority we have in Jesus, which is based on His finished work on the cross. Therefore, our prayers are effective even when they are short, weak, and poorly worded.

우리의 기도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 이 기도가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이며, 이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들이 짧거나, 약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문장으로 표현되었을지라도 효과적이다.

- B. Ninety-second prayers are valuable and effective. They matter and can connect our hearts with God while releasing His blessing to us. Do not put off praying until you have a full hour to pray. While you are rushing to an appointment, waiting at a stoplight, or standing in line at a store, you can offer ninety-second prayers that will make a difference in your life and the lives of others.

90 초 기도는 매우 가치가 있으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기도는 중요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준다. 우리가 기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속을 위해 달려가고 있을 때, 신호등에서 멈춰서 있을 때, 또는 마트에서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당신은 90 초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C. We must see the value of "weak" prayers. Some assume that because they do not feel anything when they pray, God must not feel anything. The truth is that we offer our prayers in human weakness, but *they ascend to God in power because of the sufficiency of Jesus' blood and because they are in agreement with God's heart*. Others believe that they are growing in prayer only if they feel good during their prayer times. They wrongly conclude that their prayers are meaningless when they feel dry and distracted.

우리는 "연약한" 기도의 가치를 이해해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기도할지라도 이 기도들은 예수님의 피의 충분하심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능력 있게 올라간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이 기도할 때 좋은 감정을 느낄 때에만 자신의 기도가 성장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메말라 있거나 산만한 상태에 있을 때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 D. Our prayers—all of them—are heard, even if we do not feel anything when we offer them. Do not *measure your prayers* by how you feel when you pray them but *by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in agreement with God's will and Word*. Our weak prayer times may not move us, but they move the heart of God. We can have confidence that our prayers are heard regardless of how we feel while we are praying.

우리의 기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된다. 우리의 기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로 인해 평가하지 말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얼마나 동의된 기도인지로 평가하라.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이 기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느끼는 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¹⁴Now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in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1 Jn 5:14)

¹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일 5:14)

- E. Poorly worded prayers are valuable. The Lord values our prayers even when we do not say them in the “right” way. We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Heb. 4:16) not the “throne of literary accuracy.” The Lord hears the groan of the prisoner (Ps. 79:11; 102:20) as well as the eloquence of biblical scholars and powerful preachers.

기도의 용어가 형편없을지라도 이는 가치 있는 기도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올바른” 방법으로 말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히 4:16)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 “읽고 쓰기 능력의 정확성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성경 학자나 강력한 설교자의 달변 뿐만 아니라 갇힌 자의 탄식도 들으신다 (시 79:11; 102:20).

- F. Our private times of prayer and public prayer meetings may not move us, but they move the angels, and more importantly, they move the heart of God. Never measure your prayers by what you feel. When we pray in agreement with God’s will, our “weak prayers” move God’s heart.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할지라도, 이 기도들은 천사들을 움직이는 기도들이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당신의 기도에 대해 절대로 당신의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 G. While Cornelius was praying, an angel appeared to him with a message from God, telling him his prayers would be remembered forever (Acts 10:3-4).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한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의 기도가 영원히 기억될 것을 말해준다 (행 10:3-4).

³...he saw clearly in a vision an angel of God coming in and saying to him, “Cornelius!” ⁴And when he observed him, he was afraid, and said, “What is it, lord?” So he said to him, “Your prayers and your alms have come up for a memorial before God.” (Acts 10:3-4)

³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행 10:3-4)

- H. Prayer is a brilliant way to rule the universe. Why? Because when we speak God’s Word back to Him, it draws us into intimacy with His heart and unifies us with others who pray the same things. It humbles us and transforms us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result of the Father’s ruling the universe through prayer is that His people are established in intimacy, community, and humility while engaged in partnership with Jesus to change the earth.

기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왜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께 다시 말하여 올려드릴 때, 이는 우리를 그분의 마음과 친밀함으로 이끌게 되며, 동일한 기도를 하는 다른 이들과 우리를 연합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킨다. 즉,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 온 우주를 다스리심으로 인해 그분의 백성들은 친밀함과 공동체, 겸손함으로 세워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며, 우리는 온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과 동역함으로 연결되게 된다.